「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165~192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주영**·조민효***(성균관대학교)
jyun@skku.edu ; chomh@skku.edu

본 연구는「청년패널 2007」2차-6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산시간위험모형으로 첫 취업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일과 학업을 병행한 높은 자립경향이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일과 학업을 병행하지 않은 의존경향보다 첫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임금분석결과,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 간 초기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청년의 취업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학 졸업이후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많은 청년이 실업의 위험에 놓여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 기업, 학교가 연계하여 대학생의 직업탐색기회의 폭을 넓힌다면 청년 노동력 유휴화 현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 미취업기간, 이산시간위험분석

Ⅰ. 서 론

한국은 70-80%의 고등학생이 고등교육에 진학한다(교육부, 2014). 20대 초·중반의 법적인 성인 대다수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보다 교육제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 과거의 청년과 다르게 현대 청년은 고등교육으로 인해 청소년기도 성인기도 아닌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 특성을 지닌다(Arnett, 2000). 특히, 경제적 자립 측면에서 한국 대학생은 청소년기에 가까운 양상을 띠고 있다. 국가별 비교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FR-2013S1A3A 2055042).
본 논문은 윤주영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 임.
** 주저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석사졸업
*** 교신저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를 보면, 한국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70%으로 미국 14% 일본 35%보다 매우 높은 반면, 경제적으로 자립한 학생은 15.3%으로 미국 51.3% 일본 35%에 비해 매우 낮았다(김정인 외, 2002). 일본과 미국 대학생은 부모의 경제지원을 받지 않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한국 대학생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또한, 「2012년 후기 청소년 대학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부모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분거 비용, 취업 사교육비, 생활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조혜영 외, 2012).

한국 대학생의 자립의지가 낮은 것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와 부모의 인식에 기인한다. 대졸자 노동력 공급은 늘어나는데 양질의 일자리 생성 속도는 느린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이병희 외, 2005). 대졸자간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업성적을 비롯한 어학연수, 취업사교육을 통한 자격증, 외국어 능력 등 인적자본 형성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박천수, 2009; 배호중 외, 2011). 부모는 교육비 범위를 넘어서는 거주비용,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자녀가 교육에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를 넓게 인식하여 상당한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이윤석, 2011; Goldscheider, Thornton & Yang, 2001).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경향이 높지 않으며 고등교육기간동안 학업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취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학학위 및 전공지식과 같은 인적자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크게 보장하지 못 한다.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대학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리고 졸업 후 3년이 되어도 첫 취업에 성공하지 못 한 청년이 18%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4). 일각에서는 직업을 경험하여 전문성 및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을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4년제 대학 및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가령, 현재 4년제 대학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단발적인 취업지원행사를 지원하거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박가열, 2008).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학생의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기보다 저소득 청년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다.[1] 직업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및 전문

1)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사업들은 저소득층 청년이나 미취업 대졸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업 진로지원 및 직업체험 사업이 대졸자 미취업 청년에게 고용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고용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 등 직업중심 교육기관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를 일찍이 경험한 영미권의 대학생들은 직업을 경험하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이 상승하였다고 한다(Wyn & Dwyer, 2000). 반면, 한국에서는 전공과 관계없는 단순일자리는 오히려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이상록, 2004; 이승계; 2007). 즉, 개인이 자립의지를 갖고 인턴, 아르바이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4년제 대학생에게 있어 직업탐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대졸자 노동력의 니트화(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현상 등 청년의 미취업상태가 장기화 되는 원인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실제 청년의 자립경향 및 직업경험이 가져오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대학생의 태도가 미취업 기간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 연구가 단순히 대학생의 근로경험 여부를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근로효과 및 자립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의존경향: 근로를 하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 ② 높은 자립경향: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근로로 용돈, 생활비 등을 충당 ③ 중간 자립경향: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있으나 근로로 용돈 보충. 낮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돈, 생활비 수준에서 자립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이산시간위험분석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경제적 자립경향별 첫 취업여부 및 미취업 기간을 실증 분석하고 취업자 초기임금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성과를 판단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일-학업 병행에 대한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www.moel.go.kr).

2) 기업체가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특성화고 및 전문대의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기업현장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4년제 대학일지라도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인턴십-학점 연계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영미권 대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www.moel.go.k, 이병희 외, 20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적자본론의 교육 및 직업훈련 투자

인적자본론은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효과를 고찰하고 있다. 먼저 교육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론은 교육투자로 축적한 지식, 기술, 정보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높은 소득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Becker, 1964). 지식과 정보화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노동시장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이 그러한 능력을 갖춘 노동력을 공급할 것으로 여겨진다(Wyn & Dwyer, 2000).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게 된다면 개인의 임금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Becker, 1964).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으로 얻는 편익이 현재 지출되는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Schultz, 1963).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은 고등교육기간동안 다른 어떤 활동보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 습득에 몰입하는 것이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Wyn & Dwyer, 2000).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가 점점 유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대학학위가 갖는 효과는 복합적인 취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다(Chisholm, 1997; Dwyer & Wyn, 1998; Rudd & Evans, 1998).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 비정규직 서비스분야 증가, 임금격차 등의 문제로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또한, 기술진보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ollins, 1971). 즉,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은 교과교육보다 직장 내 교육을 통해 습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Becker, 1964; Collins, 1971). Lillard & Tan(1992)은 실무 직원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문제해결능력, 결정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글쓰기능력, 성과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꼽았으며, 이러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직장 내 직업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실무능력이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그 가치를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에 관한 효과는 인적자본론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대학생의 시간 활용 맥락에서, 재학 중 근로란 앞서 설명한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수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이 근로를 할 경우 교육투자를 통해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활동에 사용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취업효과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인적자본론에서 강조하는 직업훈련의 맥락에서 대학생 근로효과를 이해한다면 상반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교육 제도 안에 있는 대학생들은 시간제 근로 및 인턴경험을 제외하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학 중 근로가 직업 내 훈련과 같은 효과를 가져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한 생산성이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인적자본론이라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를 살펴본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대학생 경제적 자립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학생 경제적 자립은 대학생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대학생이 경제활동을 통해 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충당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영리활동을 유예하고 취업성과를 높일 것이라 기대되는 전문 지식 및 자격을 갖추는 것에 우선한다(Wyn & Dwyer, 2000). 교육적 목표로 인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지체되는 현상에 주목한 심리학 연구들은 성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과 심리발달과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경제적 자립 경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기능적 독립[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산업구조, 시장구조, 교육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시절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통해 자립수준이 높았던 청년은 경제적 자립경향이 낮은 청년보다 독립적 사고능력이 더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차승은, 1999). 경제적 자립이 정서적 기능적 독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감소가 독립적 지각 행동을 가져 왔다. 또한, 대학생의 소득증가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감소하자 성인으로 대우받는 형태로까지 이어졌으며, 경제활동 자체가 학습과정의 하나로 책임감 및 독립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3) 정서적 독립이란, 부모와 분리-경계가 감각이 뚜렷하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며, 기능적 독립이란 부모와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두 번째, 경제적 자립이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곽윤영 외, 2010).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심리적 성숙이나 성장,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느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자기효능감이란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대나 신념으로 정의한다(Bandura, 1993; Ryff, 1989). 경제적 자립 경향이 높은 학생이 환경에 대한 통제감,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삶의 목적이 높게 나타났다(곽윤영 외, 2010). 그 이유는 경제력이 높아져 주변 환경을 더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념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에 따른 심리적 발달효과와 Lillard & Tan(1992)이 제시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 결정능력과 기능적 독립,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대인관계, 성과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 등과 각각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대학시기 일과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직업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할 가능성도 있다.

3. 일과 학업의 병행에 관한 연구

일과 학업의 병행에 관한 연구들은 재학 중 근로의 원인, 근로와 진로와의 관계 및 취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일 학업 병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이 진로탐색을 원활히 하는지 평가하는 연구가 있다.

일과 학업의 병행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대학생활에 부적응하거나, 대학 소속감이 낮을 경우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숙, 2006; 이상록, 2004). 또한 대학생의 근로참여가 용돈, 취미, 오락비, 의복비, 미용비, 여행비 등의 현실만족을 위한 동기로 비전문적인 분야를 수행하기에 대학생의 진로준비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되었다(이상록, 2004; 이승계; 2007).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학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에 근로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학업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국내연구의 경우 대학생활의 21%-50%의 시간을 노동에 참여한 대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았으며 국외 연구의 경우 주당 2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다음 학기 등록율과 적기에 졸업할 확률을 떨어뜨렸다(Enrenberg & Sherman, 1987).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 근로에 종사하였을 때 비근로 남학생에 비해 학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업성과가 높았다(Hay et al. 1970).

일과 학업의 병행이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연구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취업준비 확률이 미경험자 대비 높으며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 기술을 익혀 노동시장 이행이 신속하였으나 임금효과는 없었다(채창균 외, 2012). 또한, 4년제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취업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첫 취업여부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박성재 외, 2006). 대학생이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할 경우 늦춰진 졸업기간을 상쇄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행이 신속하였으나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으로 이행했다(안준기 외, 2011). 반면, 이찬영(2013)의 연구는 생계형 근로참여 학생과 근로경험이 없는 학생 간에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차이가 없었으며 직업탐색을 위한 근로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청년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재학 중 실무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학생들도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직업체험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실제 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박가열, 2008). 먼저 교육과정동안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미비하여 대부분의 청년이 진로발달에 지체를 갖고 있으며 실제 직업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순 외, 2008). 대학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전담부서 내 인력의 전문성이 많이 미흡하였으며 구직기술 향상, 취업전략 등에만 매몰되어 만족도가 매우 떨어졌다(이정표, 2005). 정부가 추진하는 현장 실습 인턴십의 경우 업무상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적어 학생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적었다(채창균 외, 2012). 산학협력 특성화사업의 경우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으며 취업지원이 형식적으로 명시만 되어있지 실제 학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된다(박동,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학 중 시간제 근로가 진로와의 연계성이 낮다는 연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한 것이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및 정부는 일과 학업의 병행을 장려하고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중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 개념을 도입한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상당한 자립수준을 달성한다면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차승은, 1999; 곽윤영 외, 2010). 이에 단순히 근로 여부, 근로목적을 나누어 분석을 시도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일과 학업을 병행한 것인지 관찰하고자 한다. Lilliard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Tan(1992), 차승은(1999), 곽윤영(2010)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한 집단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줄이려는 집단의 취업성과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높은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은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높은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첫 취업 및 초기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설명변수인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의 개념은 차승은(1999)의 연구에서 처음 산술적으로 측정되었으나 측정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와 차이를 갖는다. 차승은(1999)의 경제적 자립경향[4]은 학비, 학원비, 생활비, 용돈 등 6개월간 총 지출 대비 자신이 근로로 번 수입을 의미하며 이것이 1에 가깝거나 1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차승은(1999)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지난 1년 간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와 부모로부터 고정적인 용돈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경향 변수를 조작하였다.

4) 차승은(1999)는 Goldscheider(1990)의 경제적 공헌도의 개념과 정은주(1997) 연구의 청년기 자녀의 총 지출, 부담내역 등을 바탕으로 등록금, 학원비, 생활비, 용돈,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총 지출대비 자기 충당 비율을 산출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 경제적 자립경향 조작적 정의

설문내용	경제적 자립경향 조작적정의		
① 근로참여유무 ② 부모의 경제적 지원 유무	높은 자립경향	중간자립경향	의존경향
① 지난 조사이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	예	예	아니오
② 가족으로부터 고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나?	아니오	예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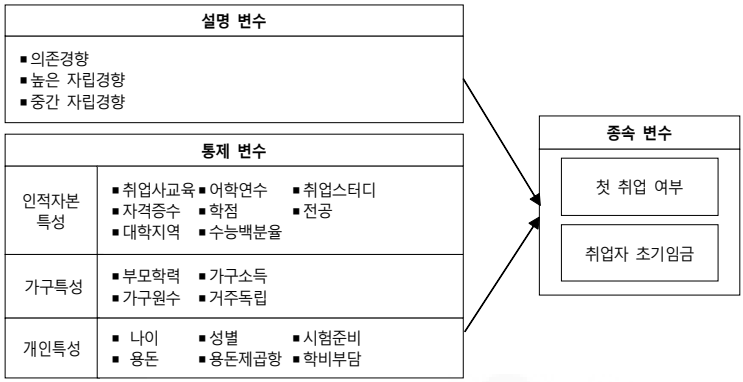
*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와 용돈

용돈, 생활비 항목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자립의 개념으로 조작한 이유는 대학 등록금 및 거주비용의 90%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주당 1시간도 일하지 않는 대학생이 많기 때문이다(나승호 외, 2013; 조혜영 외, 2012). 한국 대학생 실태를 고려하면 부모로부터 고정적인 용돈, 생활비 등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충당하는 것은 높은 자립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경향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i.e.,취업사교육, 어학연수, 취업 스터디, 학점, 자격증, 대학지역, 수능전체백분율) 및 가구특성(i.e.,부모학력,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독립), 개인특성(i.e.,나이, 성별, 전공, 시험준비, 학비부담)등을 통제한다(김미란·신동균, 2009; 박성재·반정호, 2006; 박환보, 2011, 오호영, 2007; 이규용·김용현, 2003; 이자형 외, 2012; 황여정·백병부, 2008). 중간 자립경향 및 의존경향의 경우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용돈의 크기가 상이하다. 또한, 중간 자립경향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적어 근로를 통한 자기 충당비율이 높을 수 있는 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많아 자기 충당비율이 적을 수 있어 성격이 다른 집단이 양립할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실제 지원받는 용돈의 수준에 따라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돈 및 용돈 제곱항을 분석모형에 투입한다. 즉, 용돈이라는 변인의 비선형효과(nonlinear effect)까지 감안하기 위해서 용돈의 제곱항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림 1> 연구 모형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이외에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통제변수들이 포함된다(<표 2> 참조). 첫째, 종속변수인 취업성과는 첫 취업여부 및 취업자 초기임금으로 파악한다. 취업이 가능한 대학졸업예정 시기부터 데이터 추적이 종료되는 2012년까지 1년 단위로 취업에 성공하였으면 1, 취업에 실패하였으면 0인 이항변수를 생성한다. 임금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해 단위의 표준화로 추정계수 값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결측치는 제외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명변수인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은 의존경향(=0)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높은 자립경향과 중간 자립경향을 가변수화 하였다.

인적자본특성 변수는 취업사교육, 어학연수, 취업 스터디, 학점, 자격증, 전공, 대학지역, 수능전체백분율로 구성한다. 해외어학연수는 경험=1 무경험=0으로 가변수화하고 취업사교육 경험 횟수, 취업스터디 경험 횟수, 보유 자격증 개수를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학점은 A학점=5, B학점=4, C학점=3, D학점=2, F학점=1로 자격증은 0-1개=1, 2-3개=2, 4-5개=3, 6개 이상=4으로 조작하였다. 대학지역은 서울, 인천경기, 수도권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울(=0)을 준거변수로 하고 나머지 지역을 가변수화 하였다. 출신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대학지명도 대리변수로 수능전체백분율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 대상이 4년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상위권과 중상위권에만 분포되어 있었다. 이에 상위권(1%-10%)=0, 중상위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2> 변수측정

변수		측정	
		변수 설명	척도
종속변수			
노동성과	취업	첫 취업 여부	취업=1, 미취업=0
	임금	취업자 초기임금	연속변수 (자연로그)
설명변수			
경제 자립경향	높은 자립경향	근로로 용돈, 생활비 충당	해당=1, 비 해당=0
	중간 자립경향	근로경험有+용돈有	
	의존경향	근로경험無+용돈有 (준거)	
통제변수			
인적자본 특성	취업사교육	취업사교육 경험 횟수	연속변수
	어학연수	어학연수 경험	해당=1, 비 해당=0
	학점	전 학기 평점	A=5, B=4, C=3, D=2, F=1
	자격증 수	취업 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수	0-1개=1, 2-3개=2, 4-5개=3, 6개 이상=4
	취업스터디	취업스터디 경험 횟수	연속변수
	대학지역	서울(준거), 인천·경기, 그 외	해당=1, 비 해당=0
	수능전체백분율	대학지명도 대리변수	1-10%=0, 11-30%=1
가구특성	부모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준거)	해당=1, 비 해당=0
		전문대졸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가구소득	근로+금융+부동산 소득 2,500미만(준거)/ 2,500이상- 4,500미만 /4,500이상-6,500미만/ 6,500이상 8,500미만/ 8,500이상	해당=1, 비 해당=0
	가구원 수	동거하는 가구원 수	1명=1, 2명=2, 3명=3, 4명=4, 5명이상=5
	거주독립	부모동거(준거)	해당=1, 비 해당=0
개인특성	시험준비	해당 없음(준거), 고시, 7·9급공무원, 교원 및 공사·공단, 전문자격	해당=1, 비 해당=0
	학비부담	부모(준거) 장학금, 본인, 학자금, 기타	해당=1, 비 해당=0
	나이	1978년생-1990년생	연속변수
	성별	남자, 여자	남자=1 여자=0
	전공	인문사회(준거), 자연공학, 간호 약/의학, 교육, 예체능, 기타	해당=1, 비 해당=0
	용돈(만원)	부모의 정기적 경제적 지원	연속변수
	용돈제곱항	용돈 * 용돈	연속변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1%-30%)=1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가구특성변수로 부모학력,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독립여부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0)를 준거변수로 하고,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이상을 가변수화 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을 더하여 2,500만 원 미만, 2,500만 원 이상-4,500만원 미만, 4,500만 원 이상-6,500만 원 미만, 6,5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8,5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 구성원 수는 1명=1, 2명=2, 3명=3, 4명=4, 5명이상=5로 조작하여 척도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거주독립여부를 거주독립=1, 부모동거=0으로 가변수화 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나이, 성별, 전공, 시험준비, 학비부담 등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한다.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성별을 가변수화 하였고 나이는 생년(태어난 해)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전공의 경우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간호, 의/약학계열 ④ 교육계열 ⑤ 예체능 계열 ⑥ 기타로 구분한다. 인문·사회계열(=0)을 준거변수로 하여 나머지 계열을 각각 가변수화 하였다. 고시 및 공무원 준비 등으로 미취업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고려하여 ① 해당 없음 ② 고시 ③ 7·9급 공무원 ④ 교원 및 공사공단 ⑤ 전문자격시험 등으로 구분 후 해당 없음(=0)을 준거변수로 하여 나머지를 가변수화 하였다. 또한 장학금을 목적으로 학업 지향적일 수 있기에 학비 부담 변수를 ① 부모 ② 장학금 ③ 본인 ④ 학자금융자 ⑤ 기타로 구분하고 부모(=0)를 준거변수로 하고 나머지 경로를 가변수화 하였다. 실제 중간 자립경향 및 의존경향이 부모로부터 고정적으로 지원받는 용돈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다. 지원받는 용돈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크지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 용돈 및 용돈 제곱항을 연속변수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 및 초기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해온「청년패널 2007」2차년도-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15세-29세 청년 10,206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다.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사회 경제활동, 가계 배경 및 직장경험,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등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청년패널 2007」 2차년도-6차년도 데이터를 병합하여 2차년도-5차년도 조사당시 졸업 예정시기(=대학수료)에 있는 전국 4년제 대학생 총 886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1차년도 데이터는 본 연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다. 또한, 6차년도 데이터에서 표본을 추출하지 않은 까닭은 대학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리는 청년 취업실태를 반영한 것이다(통계청, 2014). 4년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2년제와 4년제 간 교육목적이 달라 취업목표가 다르고 교육연한의 차이로 첫 취업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을 더욱 강조하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재학시기 경제적 자립경향이 첫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남자의 경우 군대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학생을 연구 범위로 삼되 대학 졸업 후 바로 군 입대를 할 경우 군대 종료시점 이후부터 첫 취업여부를 분석한다. 이와 같이 표본을 구성하고 2차년도-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첫 취업여부 및 초기임금을 분석한다. 통제변수인 가구소득에 대한 결측치는 단순 대치법[5]을 사용하여 추정값을 투입하였다.

<표 3>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낸다. 표본은 총 886명으로 이중 남학생은 400명(45.2%), 여학생은 486명(54.9%)이다. 10명 중 7명이(70.4%) 근로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의존경향으로 분류되었다. 근로를 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중간 자립경향은 10명 중 2명(21%)이었으며 근로를 하면서 스스로가 용돈, 생활비를 충당하는 높은 자립경향은 10명 중 1명(8.6%)이 채 되지 않았다. 즉, 90%이상의 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았다.

<표 3> 표본 특성-범주형 변수

변수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총합	
		N(명)	%	N(명)	%	N(명)	%	N(명)	%
성별	남	29	38.2	70	37.6	301	48.2	400	45.2
	여	47	63.2	116	62.4	323	51.8	486	54.9
전체 표본		76	8.6	186	21.0	624	70.4	886	100.0
시험 준비	해당 없음	59	77.6	149	80.1	495	79.3	703	79.4
	고시	2	2.6	4	2.2	7	1.1	13	1.47
	7·9급공무원	5	6.6	8	4.3	33	5.3	46	5.19

5) 단순대치법(Imputation)이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레코드를 참고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STATA 통계 패키지 ice 명령문을 사용하여 알고리즘 시작점을 지정한 후 추정 값을 결측치와 대치하였다(윤성철, 200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교원 및 공사공단	4	5.3	4	2.2	44	7.1	52	5.87
	전문자격시험	6	7.9	21	11.3	45	7.2	72	8.13
학비 부담	부모	50	65.8	160	86.0	578	92.6	788	88.9
	장학금	4	5.3	10	5.4	15	2.4	29	3.3
	본인	8	10.5	1	0.5	3	0.5	12	1.4
	학자금	11	14.5	14	7.5	25	4.0	50	5.6
	기타	3	3.9	1	0.5	3	0.5	7	0.8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56	73.7	153	82.3	510	81.5	719	81.2
	전문대졸	4	5.3	8	4.3	26	4.2	38	4.3
	대졸	16	21.1	24	12.9	81	13.0	121	13.7
	석사이상	0	0	1	0.5	7	1.3	8	0.9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46	60.5	121	65.1	388	62.2	554	62.6
	전문대졸	3	4.0	12	6.5	28	4.5	43	4.9
	대졸	21	27.6	47	25.3	194	31.1	262	29.6
	석사이상	6	7.9	6	3.23	14	2.2	26	2.9
가구 소득 (만원)	2500미만	12	15.8	31	16.7	86	13.8	129	14.6
	2,500이상-4,500미만	27	35.5	70	37.6	244	39.1	341	38.5
	4,500이상-6,500미만	28	36.8	59	31.7	195	31.3	282	31.8
	6,500이상-8,500미만	5	6.6	15	8.1	60	9.6	80	9.0
	8500이상	4	5.3	11	5,9	39	6.3	54	6.1
거주 독립	거주독립	12	15.8	40	21.5	142	24.0	194	21.9
	부모동거	64	84.2	146	78.5	482	76.0	692	78.1
어학 연수	유	10	13.2	32	17.2	114	18.3	156	17.6
	무	66	86.8	154	82.8	510	81.7	730	82.4
대학 지역	서울	29	38.2	55	29.6	141	15.9	225	25.4
	인천경기	10	13.2	27	14.5	76	12.2	113	12.8
	그 외	37	48.7	104	55.9	407	65.2	548	61.9
수능 백분율	1-10%	68	89.5	170	91.4	578	92.6	816	92.1
	11-30%	8	10.5	16	8.6	46	7.4	70	7.9
전공	인문사회	26	31.6	78	41.9	268	43.0	372	42.0
	자연공학	28	36.9	65	35.1	242	38.8	335	37.8
	약/의학	4	5.3	11	5.9	27	4.3	42	4.7
	교육	4	5.3	11	5.9	41	6.6	56	6.3
	예체능	13	17.1	20	10.6	41	6.6	74	8.4
	기타	1	1.3	1	0.5	5	0.8	5	0.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4〉 표본특성-연속변수

변수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용돈(만원)	0	0	29	14.26	34	19.85	30	20.28
가구원 수	3.92	0.98	3.90	0.85	3.86	0.90	3.87	0.89
취업사교육	0.57	1.09	0.87	1.39	0.53	1.01	0.60	1.11
자격증 수	1.41	0.75	1.40	0.60	1.35	0.65	1.36	0.65
취업스터디	0.22	0.45	0.25	0.45	0.22	0.44	0.23	0.44
학점	4.13	0.85	4.15	0.84	4.24	0.68	4.21	0.73

4. 분석 방법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다른 원인을 탐색하고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첫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수준에 따라 인적자본특성, 가구특성, 개인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해 의존하는 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하려는 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자립 정도에 따른 첫 취업여부를 이산 시간 위험 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으로 분석한다. 이산 시간 위험 모형이란 관찰기간동안 각 시점마다 사건이 발생할 위험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생존분석에서 위험확률이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최낙현·권혁주, 2010). 사건은 이산시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 t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건의 위험확률은 t-1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 t기간에 발생할 확률을 측정하는 것이다(이대웅, 2014).

각각의 관찰대상은 각기 다른 시점에 사건을 겪기도 하고 관찰기간동안 사건 자체를 겪지 않기도 한다. 이산 시간 위험 모형은 개별 관찰대상의 사건발생 여부와 사건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확률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학수료시점부터 '첫 취업' 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1년 단위로 분석하여 각 집단별 미취업 기간 및 첫 취업여부를 분석한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를 생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첫 취업 성공' 이라는 사건이 존재한다. 각 관찰기간마다 첫 취업에 실패하였으면 0, 첫 취업에 성공하였으면 1인 이항변수를 생성한다. 관찰시작점부터 첫 취업이 발생한 시점 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데이터 종료시점까지 관찰기간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큼 Person-period 형태로 데이터를 확장한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나타내고 각 시점마다 '취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자가 그 다음 시점에 취업이 발생할 위험확률을 구하는데 용이하게 해 준다. 범주형 종속변수(취업=1, 미취업=0)에 적합한 로짓 모형(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험률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관측시점에 대한 더미변수를 모형에 투입한다(이대웅, 2014). 가령, 미취업 기간이 1년인 학생과 2년인 학생이 다음해 취업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관측시점에 대한 더미변수를 투입하는 것이다. 로짓 회귀모형에 위험확률이 시간에 영향을 받도록 수식(1)을 구성한다.

$$\ln\frac{\lambda(t)}{1-\lambda(t)}=\alpha(t)+\beta X \quad \cdots\cdots\cdots\cdots \text{식}(1)$$

셋째, 경제적 자립경향에 따른 임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제곱 방법으로 추정하되, 왜곡이 발생하는 추정계수 표준오차에 수정을 가해 보다 적절한 값을 갖도록 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또한 측정단위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에 자연로그를 씌워 추정계수를 해석한다.

Ⅳ. 분석결과

1. 기술 통계분석

<표 5>는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간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 인적자본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기술통계분석결과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에는 성별, 학비부담, 및 용돈을 제외하고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도출되지 않았다. 인적자본 특성에는 취업사교육에 관해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어 자립수준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먼저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세 집단 간 부모학력 및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구소득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는 연구를 지지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지 않았다(Berry, 2008; Rossi & Rossi, 1990). 하지만 세 집단 간 학비를 부담하는 방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높은 자립경향이 부모부담률이 낮고 본인부담률, 학자금융자 비율이 높았다(fisher's exact test p<.00). 거주독립을 한다면 주거비용으로 인해 일과 학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세 집단 간 독립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자립경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χ^2=8.14, p<.05).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들을 둔 부모가 경제적 지원의 범위를 더 넓게 직시한 것으로 추론된다(이윤석, 2011).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의존경향의 평균 나이가 중간 자립경향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되나, 높은 자립경향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평균 용돈은 중간 자립경향 29만원 의존경향 34만원이며 의존경향의 용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3.68, p<.000).

경제적 자립경향에 따른 인적자본 특성을 살펴보면, 근로를 하지 않은 의존경향은 일과 학업을 병행한 중간 자립경향, 높은 자립경향보다 인적자본 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가령, 중간 자립경향이 의존경향보다 취업사교육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받는 것 (χ^2=28.26 p<.05) 외에는 취업스터디, 학점, 자격증, 어학연수경험여부에 있어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본특성 및 기술통계분석을 동시에 확인한 결과 높은 자립경향은 수도권지역, 의존경향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χ^2=13.04, p<.05). 하지만 세 집단 간 수능전체백분율(대학 지명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기술통계 분석-범주형 변수

변수	Fisher's exact test[6]	변수	χ^2	p-value
가구소득	p=.95	성별	8.14	p<.05
어머니학력	p=.56	거주독립	1.94	p=.38
아버지학력	p=.13	대학지역	13.04	p<.05
시험준비	p=.12	수능전체백분율	1.09	p=.59
학비부담	p<.00	어학연수	1.25	p=.54
전공	p=.17			

6)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카이제곱 검정보다 피셔의 정확성 검정을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6> 기술통계 분석-연속변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변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취업 사교육 (의존)	높은자립경향	0.53	1.02	-0.30 p=.77	취업 스터디 (의존)	높은자립경향	0.22	0.44	-0.11 p=.91
	중간자립경향	0.61	1.12	-3.70 p<.00		중간자립경향	0.23	0.44	-0.95 p=.34
학점 (의존)	높은자립경향	4.22	0.70	1.22 p=.22	자격증 (의존)	높은자립경향	1.36	0.66	-0.73 p=.46
	중간자립경향	4.21	0.72	1.51 p=.13		중간자립경향	1.36	0.64	-0.91 p=.36
생년 (의존)	높은자립경향	1985.25	2.30	-0.51 p=.60	가구원수 (의존)	높은자립경향	3.86	0.91	-0.59 p=.55
	중간자립경향	1985.37	2.29	-3.07 p<.00		중간자립경향	3.87	0.89	-0.64 p=.52
용돈 (의존)	중간자립경향	33.08	18.86	3.68 p<.000					

*준거집단인 의존경향과 나머지 집단을 각각 비교 검정하였다.

2. 취업성과 분석

1) 첫 취업여부 분석

첫 취업 및 초기임금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와 같다. 분석모형(1)에서 첫 취업여부와 미취업 기간을 분석하고 분석모형(2)에서 취업자 초기임금을 분석하였다. 의존경향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높은 자립경향과 중간 자립경향의 첫 취업여부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정기적 경제지원 없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생활비, 용돈 등을 충당한 높은 자립경향의 취업할 승산비가 의존경향보다 75.2%($p<0.05$)가 더 높았다. 즉, 높은 자립경향이 의존경향보다 2배 가까이 취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시기 자립경향이 첫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재원이 부족하여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취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취업스터디, 자격증, 대학지역, 전공, 가구소득, 시험준비 등이 있다. 자격증이 1단위 늘어날수록 첫 취업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행위는 미취업상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취업스터디경험이 1개 늘어날 때 첫 취업할 승산비가 64.3%($p<0.01$) 높아졌다. 취업스터디는 사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생간 취업을 위한 소모임이다. 특정 기업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7> 취업성과 분석

종속변수 (1)첫 취업여부 (2) 취업자 초기임금(log)		(1) 첫 취업여부		(2)취업자 초기임금	
		승산비	S.E	Coef.	Robust S.E.
설명변수 (의존경향)	높은 자립경향	1.752**	0.473	-0.005	0.076
	중간 자립경향	1.154	0.163	-0.077*	0.040
통제변수					
인적자본	취업 사교육	0.944	0.050	0.012	0.020
	어학연수(경험 無)	1.194	0.175	0.046	0.044
	취업 스터디	1.643***	0.221	0.053	0.039
	자격증	0.898*	0.050	-0.001	0.030
	학점	1.082	0.085	0.054**	0.020
대학지역 (서울)	인천 경기	1.432*	0.272	-0.069	0.056
	그 외	1.014	0.143	-0.176***	0.045
수능전체백분율(상위1-10%)		1.120	0.236	-0.015	0.063
전공 (인문사회)	자연공학	1.094	0.135	0.117***	0.037
	간호, 약/의학	2.308**	0.709	0.227**	0.083
	교육	0.829	0.227	0.198**	0.083
	예체능	1.086	0.228	-0.091	0.061
	기타	1.091	0.650	-0.062	0.156
시험준비 (해당없음)	고시	0.554	0.249	0.248	0.193
	7·9급 공무원	0.411***	0.102	0.085	0.058
	교원, 공단·공사	0.843	0.228	0.012	0.102
	전문 자격시험	0.862	0.190	0.048	0.067
학비부담 (부모)	장학금	0.792	0.253	-0.077	0.110
	본인	1.205	0.604	0.098	0.128
	학자금융자	1.034	0.252	-0.030	0.059
	기타	1.225	0.815	-0.108	0.260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1.339	0.373	0.009	0.082
	대졸	1.331	0.252	0.145**	0.056
	석사이상	0.699	0.438	-0.054	0.091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0.891	0.230	-0.001	0.073
	대졸	0.833	0.119	0.013	0.046
	석사이상	0.785	0.269	0.125	0.129
가구소득 (2500미만)	2,500이상-4,500미만	1.228	0.206	0.054	0.047
	4,500이상-6,500미만	0.807	0.143	0.078	0.052
	6,500이상-8,500미만	0.599**	0.143	0.062	0.092
	8,500이상	1.106	0.304	0.145**	0.05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구원수		1.009	0.068	-0.038*	0.019
거주독립(부모동거)		0.900	0.122	-0.048	0.037
성별(여자)		1.007	0.156	0.268***	0.046
생년		1.020	0.036	0.019*	0.010
용돈		0.996	0.006	0.002	0.002
용돈 제곱항		1.000	0.000	0.000***	0.000
취업시점 (대학수료 후 2년째)	대학수료시점	0.094***	0.017		
	대학 수료 후 1년째	1.606***	0.224		
	대학 수료 후 3년째	0.672*	0.149		
	대학 수료 후 4년째	0.338***	0.121		
(1) 첫 취업여부 분석				(2) 취업자 임금분석	
				_cons=-30.422	
Number of obs=2246				Number of obs=508	
LR chi2(30)=575.85				Prob> F= 0.000	
Prob > chi2=0.000 Pseudo R2=0.2101				R-squared= 0.2851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그 기업에 대한 취업정보를 공유한다. 특정 직렬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가 클 때 취업스터디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취업스터디 참가자가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7·9급 공무원 준비는 첫 취업할 승산비를 58.9%(p<0.00) 낮춰 공무원 준비가 미취업 기간을 장기화 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천경기 대학 출신자가 서울지역 대학 출신자보다 첫 취업할 승산비가 43.2%%(p<0.1) 더 높았다. 간호, 약/의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첫 취업할 승산비가 130.8%(p<0.01) 더 높은 것은 전공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의학계열은 대학교육 기간 동안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특수한 전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을 하기 더 어렵다. 상위소득(6,500만원 이상-8,500만원 이하/년)이 하위소득(2,500만원/년)보다 첫 취업에 성공할 승산비가 41.1%(p<0.05) 더 낮았다. 상위소득의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취업준비를 지속하고 하위소득은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나 임금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성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높은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을 채택하였으나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아 가설을 기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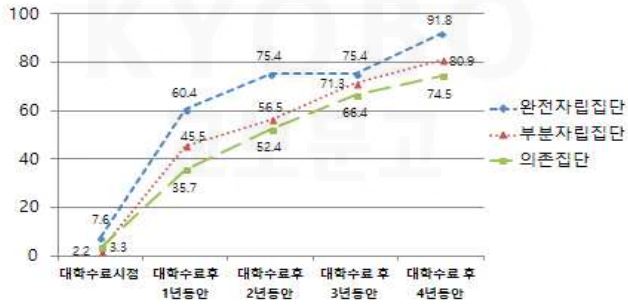
고용불안정을 고려하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장기 실업에 빠질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이시균·양수경,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졸업예정시점이후 1년 단위로 첫 취업에 성공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대학수료시점 이후 1년이 지난시점에 취업을 하지 못 했다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업한 청년을 준거집단으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두었다. <표 7>의 하단의 취업시점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수료 이후 1년째 취업할 승산비가 2년째 취업할 승산비 보다 60.6%($p<0.01$) 높았다. 하지만 대학 수료 이후 3년째, 4년째 취업할 승산비는 2년째 취업할 승산비 보다 32.8%($p<0.1$), 66.2%($p<0.01$) 각각 낮았다. 즉, 대학 수료시점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수료시점 이후 1년 안에 취업하는 것이 장기 실업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이며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대학수료시점 이후 각 기간마다 누적취업성공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높은 자립경향은 대학수료시점에 취업이 결정되는 학생이 7.6%으로 중간 자립경향 2.2%, 의존경향 3.3%보다 높았으며 대학수료 후 2년 동안 75.4%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반면, 중간 자립경향과 의존경향의 해당비율은 각각 56.5%, 52.4%으로 각 집단의 약 45 %학생의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시절 부모의 경제지원을 받았던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연하고 있어 가계의 경제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존경향의 경우 대학수료시점 후 4년이 지난시점까지 첫 취업을 한 학생은 74.5%밖에 되지 않아 청년 노동력의 유휴화가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림 2> 위험률 분석에 따른 경제적 자립경향별 누적취업률



2) 취업자 초기임금분석

앞선 <표 7>의 분석모형(2)는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취업자 초기임금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총 886명 중 67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임금에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를 제외한 후 50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의 임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이 7.7%($p<0.1$) 낮았다. 즉, 중간 자립경향의 임금이 가장 낮고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 높은 자립경향은 첫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취업 및 임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박성재·반정호, 2006; 박환보, 2011; 장기영,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면 취업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높은 자립경향을 갖고 직업경험을 한 학생의 경우 취업성과가 좋았다.

경제적 자립경향 이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점, 대학지역, 전공,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가구원수, 성별, 용돈 제곱항 등이 있다. 학점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임금이 5.4%($p<0.05$) 상승하였다. 학업이 우수할수록 임금이 높은 1차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외 대학출신자는 서울지역 대학출신자보다 임금이 17.6%($p<0.01$) 낮았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지명도에 따라 취업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오호영, 2007). 전공은 자연공학, 간호, 약/의학, 교육계열의 임금이 인문사회계열보다 11.7%($p<0.01$), 22.7%($p<0.05$), 19.6%($p<0.05$) 각각 높아 인문사회계열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이자형 외, 2012).

어머니 학력이 고졸일 때보다 대졸일 때 자녀의 임금이 15.3%상승하였다. 가구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때보다 8,500만 원 이상일 때 자녀의 임금이 14.5%($p<0.05$) 상승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취업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가구원수가 1명 많아질수록 임금이 3.7%($p<0.1$) 하락하였고 여자보다 남자의 임금이 26.8%($p<0.01$)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 수준이 대졸자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으나 매달 자녀에게 지원되는 용돈이 상승하여도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용돈의 크기가 일정수준이상이 되면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으나 그 효과는 아주 작았다.

임금효과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지명도 및 전공, 성별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의 경제지원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높은 자립경향의 임금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한 의존경향의 임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하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첫 취업을 달성하는 기간이 짧지도 않은데다 초기임금은 더 낮았다. 결국, 높은 자립경향처럼 자립의지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갖고 대학시절 직업을 경험하거나 의존경향처럼 학업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위험률 분석이 보여주듯이 대학시절 직업경험 없이 부모의 경제지원에 기댔던 의존경향의 미취업상태가 장기화되었다. 취업한 일부의 임금은 양호한편이나 대학수료시점 이후 4년이 지난시점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않은 25.5%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NEET화 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대로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높은 자립경향은 양의 회귀계수를 가져 의존경향보다 임금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아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Ⅴ. 결론 및 함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배경, 대학지명도, 외국어 점수, 학점 등에 따라 취업성과가 계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환보, 2011; 장기영, 2008; 황여정· 백병부, 2008). 고용불안정이 증대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대학서열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부모는 대학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녀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듯 교육활동에 몰입하는 전략이 형성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의 표본의 10명 중 7명이 경제활동 없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대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간 가구소득, 부모학력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Berry, 2008; Rossi, 1990). 사회경제적 요인이 부모의 용돈 지원여부 및 대학생 청년의 일과 학업의 병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구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에게 고정적인 용돈 및 생활비가 제공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에게 의지할 때 발생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잠재적 편익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후속 연구에는 용돈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외의 다양한 잠재적 지원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결과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간 학업, 자격증,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어학연수, 취업스터디 등 인적자본형성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심인 4년제 대학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교육적 목표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해 상당한 자립수준을 달성하였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학생보다 인적자본수준이 낮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학업을 균형 있게 병행함으로써 교육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함과 동시에 직업적응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주목할 점은 이산시간위험분석(Discrete-time hazard model)을 통해 첫 취업여부를 분석한 결과, 임금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가구특성, 개인특성(어머니 학력 14.5%, 가구소득 14.5%, 대학지역(수도권 외 대학 -17.6% 임금하락), 성별(26.8%)이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 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취업동기, 자립의지, 직업경험이 취업여부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스터디 경험이 1단위 늘어날수록 첫 취업할 승산비를 64.3% ($p<0.01$) 높인 것은 취업스터디 특성상 취업에 대한 동기,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자립경향의 첫 취업할 승산비가 의존경향보다 75.2%($p<0.05$) 높아 자립의지와 직업경험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간 자립경향의 경우 첫 취업할 승산비가 의존경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으며, 취업자 초기임금은 오히려 낮을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p<0.10$). 이러한 중간 자립경향의 부진한 취업성과에 대한 원인이 높은 자립경향과 비교했을 때 관측되지 않은 어떠한 개인적 성향의 차이(unobserved personal trait)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립경향 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책개입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 자립경향의 저조한 취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청년 노동력의 유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 및 직업경험을 위한 예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진로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을 살펴보면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학생이 용돈, 생활비 등을 본인 스스로 충당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사회화되어 고등교육에 진학한 후 직업을 탐색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 청년 노동력 유휴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생애 발달과정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을 탐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둘째, 대학생 일과 학업의 병행을 장려하는 사업을 정교화 하여 학생의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직업을 경험하지 않았던 의존집단의 미취업 기간이 가장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업, 학교는 대학생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산학협력사업과 국내 인턴십을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국내 인턴십은 단순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학점이수가 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참가기업은 대학생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도 있겠다. 산학협력사업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이 해당분야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이영현 외, 2008).

셋째,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는 취업사업패키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은 저소득 청년,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노동력 유휴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후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넘어선 청년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졸업자뿐만 아니라 적어도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전에 직업 역량을 미리 개발할 수 있다.

넷째, 취업지원사업의 수혜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였던 높은 자립경향의 취업성과가 높았다. 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였지만 자립을 달성하지 못 했던 부분자립의 경우 취업과 임금효과가 작았다. 취업지원 사업을 구상할 때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학생들이 참여할 유인이 생긴다. 현재 기업의 인턴십 제도는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없는 단순 업무인데다 보상체계가 상당히 낮아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다(채창균 외 2012).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면 사업 참여로 경제적 자립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이다.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형 일학습병행제를 시범 도입하였다. 대학 3-4학년 재학생이 전공 관련 직무에서 4-6개월간 장기현장실습을 하여 실무경험을 쌓고 학점도 이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즉, 4년제 대학에서도 직업 및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체계로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높은 자립수준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달성하는 것이 취업성과에 효과가 있었던 본 연구 결과의 맥락에서 볼 때, 대학형 일학습병행제의 시행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후속 정책분석평가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곽윤영·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121-141.

김미란·신동균. (2009). “전공계열별 교육투자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2(3):97-120.

김정인·송 훈·나상록. (2002). “20대의 소비, 금융행태분석보고서”, 국민은행연구소

나승호·조범준·최보라·임준혁. (2013).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

남기곤·윤진호·이시균(2010).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16(1):143-172.

민인식·최필선. (2012). “패널데이터 분석 STATA”. 한국STATA학회.

박가열. (2008). “대학생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박 동. (2013). “대학 산학협력 특성화사업의 취업지원 효과 분석 및 정책제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성재·반정호. (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29-50.

박천수. (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1):117-139.

배호중·안준기. (2011).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4):99-124.

백지숙. (2006).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논문집>. 4(1):3-18.

안준기·배호중. (2011). “대학 재학시절 근로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생계형 근로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4):149-180.

오호영. (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0(2):87-118.

윤성철. (2004). “결측값의 대치법”, <예방의학회지>. 37(3);209-211.

이규용·김용현. (2003). “대졸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69-93.

이대웅. (2014).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2):93-12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병희·김주섭·안주엽·정진호·남기곤·류장수·장수명·최강식. (2005).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상록. (2004).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및 진로준비에의 효과 분석”. <지역발전연구>. 4(1):129-152.

이승계. (2007). “대학생의 노동경험과 직업선택의 관련성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2):123-141.

이시균·양수경. (2012). “초기노동시장 경험이 향후 청년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84:222-250.

이윤석. (2011).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연구: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3):1-30.

이자형·연보라. (2012). “전공계열에 따른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4):199-226.

이정표, (2005) “대학생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주요국의 직업기초능력 지원 실태 비교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찬영. (2013). “근로유형에 따른 재학 중 근로의 노동시장 초기성과”, <경제연구>,31(1):85-106.

장기영. (2008). “대학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사회경제적배경, 교육특성 및 이행준비 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연순·박가열·오민홍·이로미·장지은·김은영. (2008). “한국 니트 취업지원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조혜영·김지겸·전상진. (201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차승은. (1999). “청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립과 분거 경험이 정서적 및 기능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4(2):131-151.

채창균·장홍근·오은진·이병희·이주호·이만희. (201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낙현·권혁주. (2010). “기간제 노동자의 지위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 20(2):165-184.

황여정·백병부. (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1-23.

Arnett, Jeffery Jensen.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117-148.

Becker, Gary S. (1964). Human Capita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erry, Brent. (2008). Financial Transfers From Living Parents to Adult Children: Who Is Helped and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Why?.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7(2):207-239.

Blundell Richard & Lorraine Dearden & Costas Meghir & Barbara Sianesi. (1999). Human Capital Investment: The Returns Individual, the Firm and the Economy. *Fiscal Study*. 20(1): 1-23.

Chisholm, L. (1997). Initial Transitions Between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in Learning Society. *International Bulletin of Youth Research,* 15:1-16.

Collins Randall. (1971) Functional and Conflict Theories of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6):1002-1019.

Dwyer, P. and Wyn, J. (1998). 'Post-compulsory Education Policy in Australia and Its Impact on Participant Pathways and Outcomes in the 1990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3: 285–300.

Goldscheider, F. K. Thornton, A. & Yang L. (2001). Helping out the kids: Expectation about parental suppor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August :727-740.

Johanna Wyn & Peter Dwyer. (2000). New Patterns of Youth Transition in Educ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2(164):147-159.

Lillard, L. A. and Tan, H. W. (1992), Private Sector Training: Who Gets It and What Are Its Effect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13:1-62.

Rossi, Alice & Peter H. Rossi.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tk: Aldine de Gruyter.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1069-1081.

Schultz, Theodore W. (1963).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conomic Review*, 51(1):1-17.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교육부 www.moe.go.kr

통계청 www.kostat.go.kr

윤 주 영: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학생 경제적 자립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15.02).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평가, 사회정책 등이다(jyun@skku.edu).

조 민 효: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McCourt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2001년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Chicago, The 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2006년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 이다. 주 연구 분야는 교육, 복지, 이민, 형사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분석 및 평가다. 최근 주요 논문들은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2012), Crime & Delinquency(2013), Journal of Adolescence(2014),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2014,2015),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in press) 등에 게재하고 있다(chomh@skku.edu).

논문투고일: 2015.1.29 / 수정일: 2015.2.20 / 게재확정일: 2015.3.2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